

이기는 삶

### 틈새시장을 공략하라

중국 남방의 한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내걸고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회사에서는 모여든 지원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흘 내에 가능한 많은 빗을 스님들에게 팔고 오라”는 다소 엉뚱한 요구를 했다. 응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 하는 수 없이 해보겠다는 사람, “스님들은 모두 머리털이 없는데 무슨 수로 빗을 파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갑, 을, 병 세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각각 나무 빗을 짚어지고 길을 떠났다. 열흘 후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했다. 우선, 갑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빗을 팔려다 스님들에게 면박만 당한 채 쫓겨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산기슭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머리가 가려워 연신 긁어대고 있었는데 갑이 빗으로 긁어주자 아주 시원해하며 빗을 한 개 사주었다.

을은 꽤 큰 절을 찾아갔다. 참배하려는 신자들의 머리가 바람에 날려 엉켜진 것을 보고 그는 주지 스님에게 말했다.

“저런 꼴로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제단 앞에 빗을 놓아두어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참배를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을은 빗 10개를 팔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병은 빗 만 개를 팔았다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직접 지시를 내렸던 사장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병은 이 평범한 나무 빗으로 ‘공덕소(공덕을 쌓는 빗)’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우선 유명한 절의 주지 스님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주지 스님이 나무 빗 위에 ‘공덕소’란 글자를 써서 사주자와 참배객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라는 내용이였다. 참배객이 향을 올리고 나면 스님들이 직접 이 빗으로 머리를 한 번 빗겨준 다음, 그 빗을 참배객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하면 되었다.

병은 이렇게 하면 이 절에 참배객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우선 외상으로 빗 1천 개를 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말이 틀리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덧붙였다. 주지 스님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랬더니 과연 입소



문을 타고 참배객들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주지는 아주 기뻐하면서 병에게 빗 만 개를 주문했던 것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찾고 이를 만족시키는 데 급급하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경쟁 기업에 따라 잡히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틈새시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시장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객의 모호하거나 기존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욕구를 구체화시켜주고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

결국, 스님에게 빗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참배객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좋은 것이 있으니 사용해 보라”는 식의 가르침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고객이 새로운 욕구로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 ‘사람 몸의 빛은 생명’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본래 빛의 신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빛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하나님이기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화하면 현재의 사람의 형상은 없어진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 해업치는 물고기 자세~

효능: 등이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특히 좋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도움.

**동작①:** 등 대고 누워서 양발은 가리런히 모으고, 양손의 엄지를 안으로 넣고 주먹을 친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가슴에 댄다.

**동작②:** 숨을 내쉬면서 양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 가슴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에 대려고 노력한다. 척추뼈가 하나하나 퍼지는 느낌으로 한다. 20초 유지. 5회.

#### 코브라 자세~

효능: 복근과 앞 목이 쭉 펴지면서 가슴을 펴주어 폐 기능 향상에 탁월함.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항상 뒷목이 빠진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동작③:** 옆드린 자세로 다리를 쭉 펴서 모으고 팔을 굽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둔다. 턱은 바닥에 대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5-10회 한다.

**동작④:** 숨을 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며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끌어 올린다. 시선은 뒤쪽 하늘을 향하여 숨을 5-10초간 참는다. 숨을 내쉬면서 팔로 바닥을 미는 힘보다 배를 바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다에 붙이려는 힘이 강하도록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배, 가슴, 턱 순으로 바닥에 붙인다. 20초 유지. 5회

팁: 상반된 동작을 행함으로 척추와 복근에 강한 자극이 온다. 발뒤꿈치와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격암유록 **신해설** 수정판 제1회

## 격암유록 신해설 수정판을 내면서



#### 수정판 서문

경자년 12월의 격암유록 신해설을 내놓으면서 표현이 다소 거칠고 매희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은 차에 승리신문사 김종만 사장이 일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격암유록 신해설 수정판을 내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여 필자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흔쾌히 동의하게 되었다. 물 토끼(水兎)의 해인 계묘년에 맞게 될 백조십삼(百祖十參)의 운을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수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아무쪼록 때를 놓치지 말고 모두 정도령의 천지 공사로 열리는 꿈의 시대를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壬寅 陰 四月 鷄籠白石에서 大和堂 明 拜上

#### 1. 남사고비결 南師古秘訣

兩弓雙乙知牛馬 양궁쌍을지우마  
田弓從金權花宮 전태중금권화궁  
精脫其右米盤字 정탈기우미반자  
落盤四乳十重山 낙반사유십중산  
八力十月二人壽 팔력시월이인십  
人言一大十八寸 인언일대십팔촌  
玉燦秋夜三八日 옥등추야삼팔일  
南北相和太平歌 남북상화태평가

궁궁을을(弓弓乙乙)이 우마(牛馬)=소와 말)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전(田)이여! 금운을 좇아 근화궁(權花宮=무궁화 피는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도다. 궁궁(弓弓)을 배궁(背弓)하면 백십(十)자가 나오며 을을(乙乙)에서 전(田)자가 나온다. 전

(田)자) 속에 하나님(정도령)을 뜻하는 십(十)자가 있다. 궁궁은 천마(天馬)요 을을은 지우(地牛)이다. 하나님(궁궁)이 영적인 아들이 되는 을을을 낳아 길러 궁궁과 을을이 합일하게 되면 즉 궁을합덕(弓乙合德)을 하면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세상 사람이 아닌 천신(天神)이 하강(下降)한 정도령(궁을십승인, 15진주)이 된다. 전(田)으로도 표현한다.

정(精)자의 오른쪽 청(靑)자를 떼면 미(米)만 남고 미(米)자 모양인 소반의 네 젓꼭지가 떨어지면 백십(十)자가 나온다. 전(田)자의 네 모서리를 떼어내면 십자가 나온다. 중산(重山)은 출(出)자의 파자.

팔력시월이인(八力十月二人)은 이길승(勝)의 파자이다. 십승(十勝)즉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정도령)을 찾아가라. 인언일대십팔촌(人言一大十八寸)은 신천촌(信天村)의 파자이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십승)을 믿는 신천촌을 찾아가라.

또한 가을은 금운을 좇아 나온 정도령이 알곡을 추수하는 계절로서 중천(中天)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천(先天)은 봄, 후

천(後天)은 여름, 중천(中天)은 가을이다. 삼팔일(三八日)은 삼(三)은 갑(甲), 팔(八)은 을(乙)이며 일은 해이니 삼팔일은 갑을의 해라는 말이다. 중천(가을)에 금운을 좇아 오시는 정도령(15진주 진인 십승인)의 천지공사로 갑을의 해에 남북화합(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欲識養生保命處 육식창생보명처  
吉星照臨眞十勝 길성조림진십승  
兩白三豐眞理 양백삼풍진리  
眼赤紙貨人不睹 안적지화인부도  
九宮加一十勝理 구궁가일십승리  
春滿乾坤福滿家 춘만건곤복만가  
龍龜河洛兩白理 용구하락양백리  
心清身安化生人 심청신안화생인

창생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곳을 알려거든 길성이 비추며 임하는 진짜 십승을 찾아가라. 길성은 어두운 밤 활로(活路=살길)를 알려주는 밝은 별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구세주 정도령은 밝은 별이라는 함자(銜字)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진짜 마귀를 이기신 십승이다. 또한 구세주는 조(曹)씨로 감람하시니 이분이 진짜 십승

이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조립(照臨)은 조림(曹臨)이다. 동음이의(punning)를 이용한 암호이다. 미륵진경에 사좌전조구중생(敝罪天曹救衆生)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로서 81궁 정도령은 조(曹)씨로 온다는 뜻이다. 그분이 진십승(眞十勝)이다.

양백삼풍의 진리를 알아야 할지니 물욕에 물들고 돈에 눈이 빨간 사람은 이를 가려보지 못하는구나. 양백 즉 태백(하도)소백(나서)에서 백십승이 나오고 십승 정도령이 화우로 삼풍해인을 내리서 사람을 살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하건만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말이다.

구(九)에 일(一)을 더하니 십(十)이요 십승의 진리로 천지에 봄기운이 가득차고 집안에는 불사영생의 복이 넘치는구나. 81궁 정도령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춘하추동 사계절이 없어지고 사시장춘(四時長春) 즉 늘 봄과 같이 된다. 건곤(乾坤)은 천지의 다른 표현이다. 건(乾)은 천(天)을, 곤(坤)은 지(地)를 의미한다.

용마하도(태백) 영구나서(소백) 즉 양백에서 나온 십승인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몸이 편안하게 변화된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 생명샘

### 음란을 이겨야 하는 이유

승리제단에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란(정욕)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마귀의 무기가 바로 음란이기 때문에 마귀는 음란으로 사람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님은 음란 마귀가 천국 문턱까지 쫓아온다고 음란 마귀의 집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그만큼 이기기 힘든 것이 음란이다.

세상 사람들을 관찰해 봐도 음란으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 유력 대권주자급으로 촉망받던 모 도시사와 광역단체장이 구속 수감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의 방식이 생존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번식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진화양식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포식자에게 먹히기 쉬운 동물의 경우에는 번식을 중시하여 하나라도 남는 자손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여 많은 자손을 낳는 반면, 포식자의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번식보다는 오래 사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쥐나 개 등은 새끼를 수십 마리 낳고 수명이 몇 년 안 되는 반면 호랑이나 사자는 몇 마리 새끼를 낳고 수명이 수십 년에 달하게끔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과학자들은 노화는 유성생식이 생긴 후부터 발생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무성생식을 하는 박테리아는 죽지 않는다. 한 마리가 두 마리로 그대로 복제 가 된다. 또한 무성생식을 하는 말미잘은 심지어 머리를 잘라내도 다시 머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보면 말미잘은 포식자에 의해서 죽지 않는 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보인다.

노화가 유성생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性)을 알게 되면 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되는 데 이는 음란을 이겨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승리제단의 교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란 선천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 인이지만 마음으로 음란을 완전히 정복한 존재를 말한다. 또한 이 말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된다. 불경 또 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도를 닦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필자가 과묵하여 다른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경전에서도 똑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노화를 이기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음란을 이겨야 한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